

01 교회소식

부활과 영생, 천국소망 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아무 죄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손과 발에 못박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은 오직 사랑때문이었다.

02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03 기획특집

예수님의 옷에 담긴 섭리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겔옷과 속옷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과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04 간증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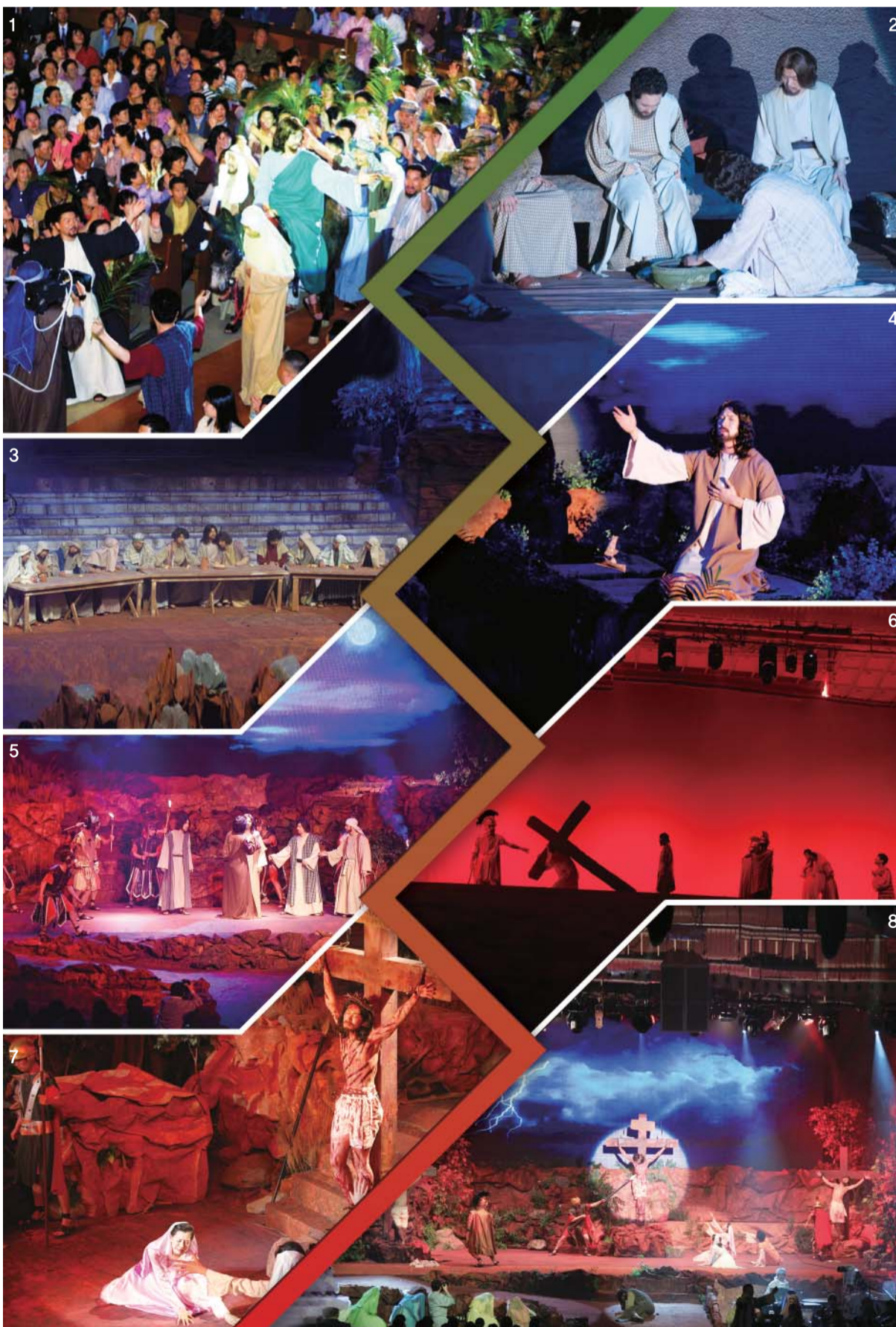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전종익 장로와 시력이 회복되고 B형 간염을 치료받은 몽골 히식진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79호 2015년 3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도를 되새기는 고난주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사진 1).

이튿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셨다. 또한 예수님을 책잡고자 따져 묻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권세 있는 말로 깨우침을 주셨는데, 이에 말문이 막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더욱 혈안이 된다.

한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일에 불만을 품었던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중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후 겟세마네에 이르러 앞으로 이루실 사역을 위해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다(사진 2, 3, 4).

이윽고 가롯 유다가 데려온 대제사장의 하숙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뒤 갖은 고초를 겪으신다. 심한 채찍질과 짐 배움,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사진 5, 6, 7, 8).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인 이 주간, 3월 16일부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진행 중인 우리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낸다. 또한 2013년 3월 31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전 성도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목자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며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4월 3일 금요일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전 성도가 한 끼 이상 금식함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금요일야예배 2부 때에는 부활절 뮤지컬 공연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뮤지컬 공연 '순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로 구성됐으며, 연합성가대연합찬양팀-닛시오케스트라-할렐루야반주단의 찬양과 연주, 예능팀과 성도들의 연기, 생동감 있는 무대 연출과 공연 전문 스태프의 특수효과로 잊지 못할 은혜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 다한 순종과 섬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뜻 깊은 고난주간이 되길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32~36)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부분에는 예리한 갈고리가 달려 있는 채 짝으로 맞으실 때는 살점까지 떨어져 나갔 습니다. 이런 채 짝으로 많이 맞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 을 정도입니다. 온몸이 피로 붉게 물들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졌습니다.

채 짝에 맞으신 후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 양손과 양 발을 십자가에 못박힌 채 목숨이 끊어질 때 까지 고스란히 모든 고통을 당하셨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 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 때문 에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의 고통이 더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연단을 받는 다 해도 “힘들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은 고난과 고통에 비한다면 견딜 만한 것이니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승리하며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연단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의 심정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겿세 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 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며 거리를 두고 떨어져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의 사람처럼 괴 롭고 슬픈 감정을 토로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음 날 실제로 있을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라 고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 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하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만감이 교차하셨습니 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인생을 향한 하나 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섭리를 생각하셨지 요. 또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애뜻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많

은 일이 생각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처럼 많은 아픔과 고통 과 슬픔을 체험하고 직접 느끼시면서, 하나 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들 에 대한 생각으로 몹시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영의 마음을 이루어 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처럼 표현하시는지 마음에 감동으로 느끼 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 적인 고백을 하셨을까?’ 하며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며 마음을 영으로 일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중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 판단까지 하 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영의 마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상대의 말이나 단 어 표현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느끼며 성령의 감동함 가 운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 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 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 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성을 가지 셧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인자로서는 쉽지 않지만 오직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 내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 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 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 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 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 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십자 가의 고난이 육으로는 부끄러움이지만, 영으 로는 지옥에 갈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 하는 것이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 입니다.

이와 달리 많은 성도가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게 왜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연단이 너무 힘드니 빨리 끝나게 해 주세요.”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정녕 믿음이 있 다면 원망이나 탄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왜 연단이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그 이유를 먼저 찾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죄를 짓거나 영적인 잠에 빠 질 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 니다. 만일 이럴 때 “어차피 받아야 할 연단 이라면 받겠지만 더 큰 시험은 막아 주시고 이 연단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다면 이 또한 온전히 선한 기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연단을 받겠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들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 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는 아름다운 선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연단을 주심에 감사하고, 정녕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 니다. 그 연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해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온전한 변화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 도 예수님처럼 마음 중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 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며,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데리고 나타난 대제사장의 하숙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신 후, 마침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으셨을까?”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 파고드는 가시의 찔림도 그대로 느끼셨고, 날카로운 조각이 촘촘히 박혀 있고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은 이유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뒤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겉옷과 속옷이 모두 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치를 당하셨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뽑았다(요 19:23~24). 이처럼 성경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게 하신 섭리

요한복음 19장 23절 전반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요 12:13, 18:39, 19:19) 불리신 예수님의 ‘겉옷’이란 이스라엘 또는 유대 민족을 지칭한다.

로마 병사들이 옷을 네 깃으로 나눔으로써 옷의 형태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옷 조각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은 남을 것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겉옷이 네 깃으로 나뉜 것처럼 나라가 망해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채 못 돼 예루살렘은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됐고, 성전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나라가 없어지니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져 팍박받거나 죽음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유이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자 군중은 더욱 소리 높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친다.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이 말대로 보응이 따라 무수한 사람이 피를 흘렸다.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에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약 6백만 명의 유대인이 별거벗긴 채 참혹하게 나치에 의해 죽어갔다.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뽑은 섭리

사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라고 예언한 대로,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했다.

속옷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므로 예수님의 속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게로 섬겨왔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뽑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유대인의 민족정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은 나뉘지 않고 보존된다는 뜻이다. 에스겔 38장 8-9절에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무렵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어 나라가 재건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선진국가로 떠오르면서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확증했다. 이는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들의 마음 중심과 신앙이 그만큼 굳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속옷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미리 알려 주고 있다.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독립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속옷을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이유

요한복음 19장 23절 후반절에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했다. 호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겹의 형겼을 겹쳐 꿰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 한 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은 야곱에 의해 열두 지파가 형성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창 35:10~11).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의해 기틀이 형성돼 순수한 단일민족으로 내려오다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해 단일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었지만 남유다는 단일민족으로 남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유다 사람 곧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옷을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이유는 이스라엘 국가가 야곱에 의해 형성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단일민족으로 나올 것을 의미하고 있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3월29일~4월4일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십자가의 도 24 ■ 축복 2
- 창세기 강해 28 ■ 예언 2
- 1차 영혼육 4-8 ■ 공의
- 일곱교회 1-4 ■ 마음 다해
- 요한일서 강해 34-38
- 요한계시록 강해 29-37

GCN TV설교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2 (이수진 목사)
- 말장이 2 (이미영 목사)
- 말씀, 기도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14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 (정구영 목사)
- 보석같은 마음 (김수정 목사)
- 영적인 어린이 (송지형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5
- English 11 ■ 즐거운 요리 4
- 옛날 옛적에 3 ■ 내 마음의 찬양 8
- 흥겨운 소리 6 ■ 창조와 과학 7
- 모두 드려요 25 ■ 뷰티플레이프 8

특집 프로그램

- 2011~2013 부활절 공연
- 2015 부활절 공연 (녹화방송)
- GCN 특선영화 (나사렛 예수)



“사랑을 전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중의 장로 (52세, 금천파출소 순찰팀장)

저는 1993년 3월경, 동서인 최임수 장로 부부가 전해 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 등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노력해 가니 하나님께서는 미국 FBI(미연방수사국) 연수, 경사 승진시험 수석 합격 등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1993년 11월, 본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에도 대통령 경호실 발령 등 가정과 일터에 축복이 넘쳤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당시 매스컴에서 잇달아 보도된 조계사 사태 진압을 위해 저는

경찰 특공대 팀장으로 대원들과 함께 고가 사다리차에 올라 5층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사다리를 받치고 있던 난간의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져 고가 사다리차가 뒤집히면서 순식간에 15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떨어지는데 커다란 손이 제 몸을 살포시 받치는 것을 느꼈고, 땅바닥에 숨을 갈아 놓은 것 같은 폭신함이 느껴졌지요. 놀랍게도 저는 다친 곳이 전혀 없었으며 기적 같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란 직업은 보람도 있지만 곤혹스럽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야간당직 때의 일입니다. 덩치가 큰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 강도혐의로 연행돼 왔는데, 큰 소리를 지르고 주전자 뚜껑, 병뚜껑 등을 씹어 먹으며 배가 아프니 병원에 보내 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무도 제지를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니 시뻘건 눈

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며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피하며 “당신을 똑바로 볼 수 없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잠시 후 그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고 부동켜안은 채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뒤 그는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하에 힘입어 신앙을 갖게 돼 감사하다는 눈물의 옥중서신을 보내 왔지요.

오래 전부터 저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목에 걸고 다녔는데, 이때 그 손수건의 능력이 나갔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제가 도맡아 해결하곤 합니다. 적극적인 선의 행함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지요. 평소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도 저의 진심을 느끼며 탐장인 저를 잘 따라주어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와 팀 화합을 이룸으로 저희 팀이 2014년 서울특별시 경찰 업무평가에서 1위를 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저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속히 오신단다!”라는 우렁찬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뒤, 주님의 피 값을 찾아드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을 전하고 있지요. 제가 연합회장으로 있는 3남선교회 연합회에서도 모든 일꾼이 사랑으로 하나 돼 열심히 심방한 결과, 약 3개월 만에 장결자 30여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히식 집사 (49세, 몽골만민교회)

“B형 간염을 치료받고, 당뇨로 인한 시력도 회복됐어요”

저는 당뇨병과 B형 간염으로 6년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4년 전부터는 시력까지 나빠져 책을 읽거나 일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쳐서 상처가 나거나 감기나 열 등으로 고통받을 때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와 무안단물을 통해 치료받았고, 가솔해 3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GCN 생방송(www.gcntv.org)을 통해 예배 때마다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



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지요. 아울러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2014년 1월 병원 검사 결과, 당뇨 수치는 떨어지고 B형 간염이 치료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시력도 회복되어 안경 없이도 책을 읽고 일하는 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치료받아 마음이 평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일간지에 보도된 조계사 사태 진압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 당시의 모습(1998년 12월 23일, 점선 부분: 전중의 장로).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6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9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